

2015년 7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32,494,949	전월이월금	163,887
지 로	3,625,970	우리은행	8,809,100
국민은행	5,918,070	하나은행	1,431,160
조흥은행	200,030	신한은행	1,665,200
외환은행	662,670	제일은행	325,030
농 협	1,655,380	기업은행	915,070
우 체 국	55,010	지정기탁	470,000
		교구보조	6,598,372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556,90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53,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90,57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1,086,37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940,09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2,479,800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보육지원, 중병 치료 지원금	
교육비	305,48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종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4,297,21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4,959,420	잔액(이월금)	7,535,529

<쉼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8	2	0	30
베다니아의 집	4	3	1	6
벗들의 집	6	2	1	7
사랑의 집	11	0	0	11
마고네공부방	8	0	0	8



서품 10주년을 맞이해 동기신부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누가 봐도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 함께 있으니 다시 어릴 적 예신, 신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동기모임들이 매달 있었다 해도, 외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중이었던 동기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못 보던 반가운 얼굴들까지 모두 모이니, 딱히 어디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는 것으로 마냥 행복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수다는 끝이 없어, 순례기간 내내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그간 못했던 밀린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미사 강론 때마다 각자의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만큼 나름의 경험들도 참으로 다양했고, 가슴 아픈 일도, 마음 따뜻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기들이 새삼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꾸밀 필요도 포장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이유도 없고, 훌륭한 척, 강한 척, 잘난 척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의 언행이나 인간 됨됨이를 점수 매기려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다들 나이 먹고 경험

이 많아지니, 고집도 세지고, 말도 많아졌지만 이런 모습들도 서로 농담으로 주고 받을 수 있으니 그 또한 추억거리였습니다.

문득 강론 때, 한 동기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0년 전 서품식 전례 중에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류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 줄 몰랐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을 10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서 무슨 뜻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하느님의 도우심'에 겸손되어 우리들 자신을 다시금 봉헌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동기의 강론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친구들의 도우심도 추가해야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주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사랑하시는 동료들의 도우심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후원미사는 21일,

10월 후원미사는 19일,

11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7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7명입니다. 그 중 필리핀 환자(남, 35세, 기혼, 합법)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5년 1월에 입국한 이 환자는 목 밑에 있는 멍울이 점점 더 커지고 몸무게가 빠지는 등 몸이 안 좋아져서 7월 1일에 이주노동자상담실을 찾아 왔습니다. 근처 의원(1차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나 담당의사가 상급병원으로 가보라는 진단을 하여 적십자병원(2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적십자병원 담당의사 소견도 목뿐 아니라 쇄골과 사타구니 등 다른 곳에도 멍울이 있어 큰 병일 수 있으므로 다른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의료보험을 가입 시키고 서울의료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임파선암 말기였습니다. 그래도 임파선암은 임파선 전반에만 걸쳐 퍼지는 암으로 말기여도 제때 치료만 받는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본국에 부인과 자녀가 있어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하는 상황이지만 비자의 특성 상 고정적인 월급도 없고, 더구나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큰 병에 걸려 생활비를 송금해주는 커녕, 본인의 치료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외래 진료비도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납부 했습니다.

다행히 의료보험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어 의료지원(급여품목에 관해 95%)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퇴원할 때 자기부담금 중 일부인 50만 원은 동료의 도움을 받고, 30만 원은 가톨릭의료협회의 의료지원금을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병원비 123,590원은 이주사목위원회의 긴급지원비로 납부해주었습니다.

현재 꾸준한 치료 결과 많이 호전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수개월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아픔보다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와 치료비가 현재 이 환자에게는 앞선 걱정입니다. 이 환자가 주님 안에 완치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물놀이



야외활동



시청각 교육